

# Focus

## 6대 전략광물 세계 시장전망

\* 본 자료는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요약

- ▶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세계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한계를 나타내면서 위험자산인 광물자원의 하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음. 미연준의 금리인상 정책종료로 향후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확대되는 상황임
- ▶ 다만, 미래 전기차 시장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출현으로 4차산업 자원수요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수요 창출효과를 감안해야 함. 이에 따라 광종별로 소비와 공급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은 중국의 제조/건설업 등 전통산업의 성장속도 둔화로 소비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둔화될 수 있으나, 전기차 충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전망으로 `25년까지 연평균 1.7% 성장세가 예상됨. 동 공급은 칠레 대형광산의 노후화, 신규 프로젝트 부족 등으로 공급증가율이 소비증가율을 밑돌 것으로 예상됨
- 니켈은 인도네시아가 내년부터 원광수출을 금지할 경우 중국의 니켈선철(NPI) 제련소가 수입하는 24만톤 가량(세계 니켈 공급의 약 10%)의 니켈수급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니켈수급은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 아연은 대형광산 폐광으로 공급부족 편더멘털이나, 중국의 경기둔화로 공급과잉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철광석은 올해 메이저 Vale사의 브라질 광미담 붕괴사태로 공급쇼크를 받았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Vale, BHP Billiton, Rio Tinto사 등의 저원가 증산 전략의 영향으로 공급과잉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 유연탄은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비중 확대에 따른 발전수요 약화 및 밋 해상교역탄 수입규제 강화로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 우라늄은 `11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이후 원자력 소비둔화에 따른 재고량 누적으로 하방압력을 받고 있음. 다만 중국과 UAE등의 신규원전 수요확대가 예상되며, `19~`30년 연평균 2.1% 소비확대 전망(W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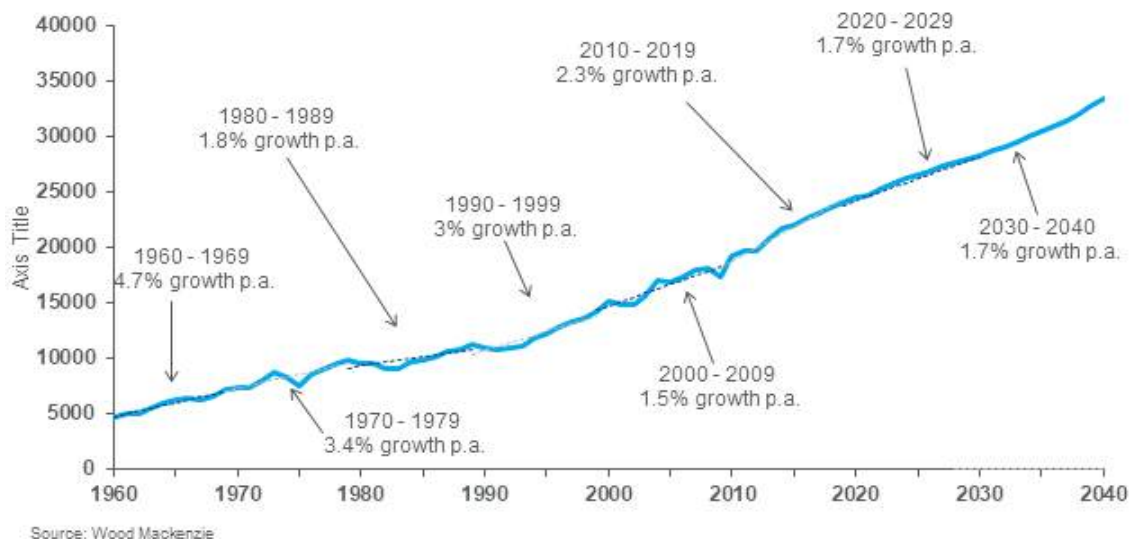
## 1. 개 요

광물자원 시장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세계 경기하락 리스크로 전반적으로 하방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경제전망도 내수/서비스 중심으로의 성장동력 전환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금년들어 미연준은 금리인상 종료를 선언하면서 금리인하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화하였으나, 전반적인 세계경기 하락 때문에 미달러화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위험자산인 자원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전기차 시장,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4차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신규 수요가 창출되고 있으며,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대형광산들의 매장량 고갈, 자원민족주의적 수출규제, 환경규제 강화 등 공급차질 이슈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자원시장 전망을 위해서는 국제 경기전망과 함께 광종별로 수급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광종별 수급 전망

### I (1) 동

〈세계 동 소비량 성장률(CAGR)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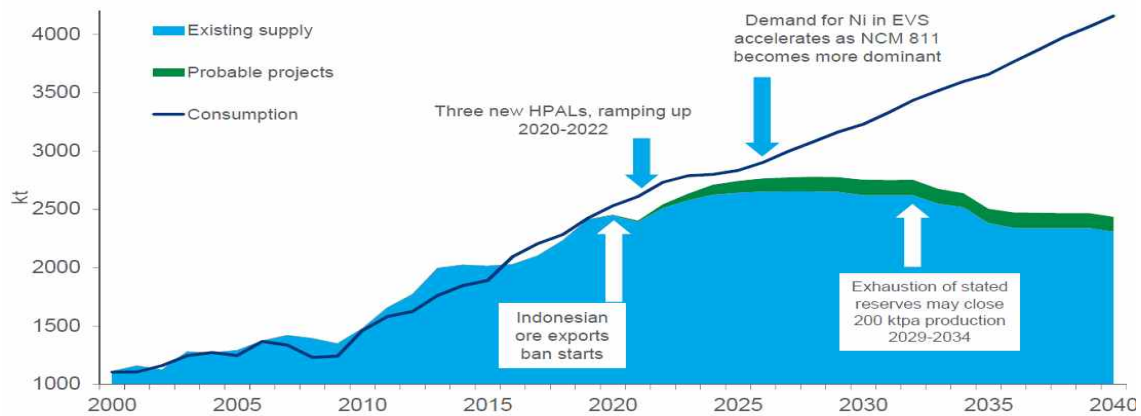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 둔화 및 세계 경기부진 여파로 동 소비증가율은 단기적으로 둔화될 수 있겠으나, 미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확대 등 4차산업 신규 수요가 세계 동 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계 동 소비는 `18년 23.5백만톤에서 `25년

26.4백만톤으로 연평균 1.7%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동 공급은 `18년 23.5백만톤에서 `25년 26.2백만톤으로 연평균 1.6%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sup>1)</sup>. `17년초 칠레와 페루의 대형 광산에서 장기 노조파업 여파로 공급쇼크가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대형광산들의 노후화에 따른 품위저하 및 신규 프로젝트의 부족, 칠레와 페루의 시위확대 등으로 생산차질이 나타나면서 공급부족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I (2) 니켈

### <세계 니켈 소비·공급 전망>



Source: Wood Mackenz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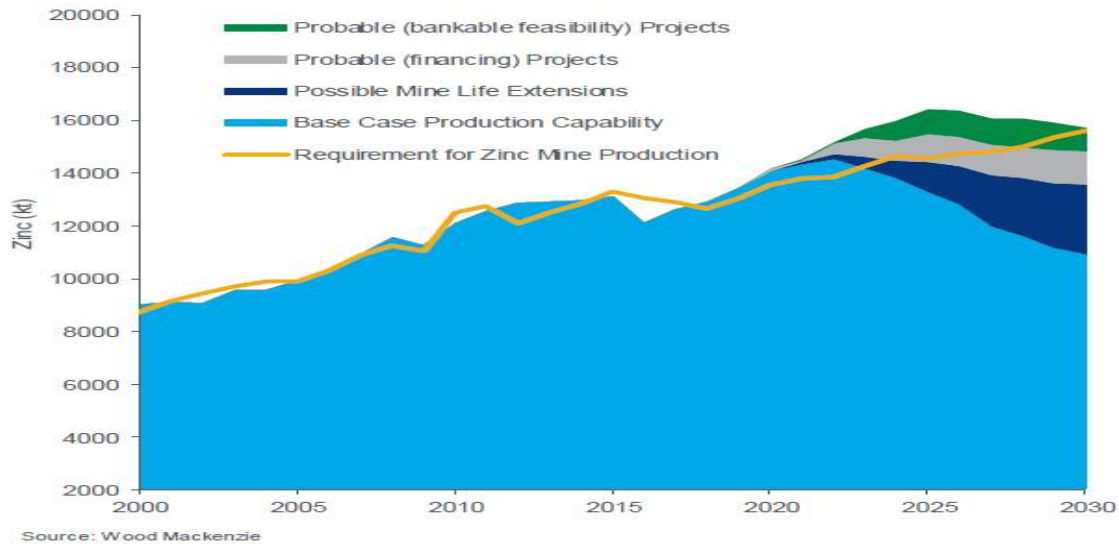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로 4차 산업 핵심광물이라 볼 수 있다. 세계 경기부진으로 니켈의 최대소비처인 스테인리스 산업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기차 배터리 시장확대에 따라 세계 니켈소비는 `18년 2.3백만톤에서 `25년 2.8백만톤으로 연평균 3.1%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니켈소비는 현재 점유율은 낮은 수준이나 향후 연평균 16.4%의 신장세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점차 소비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sup>2)</sup>. 니켈공급은 세계 1위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니켈 원광수출을 금지하였고, 세계 2위 필리핀도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생산제약으로 중국의 니켈선철(NPI) 생산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가 내년부터 원광수출을 금지할 경우 중국의 니켈선철 제련소가 수입하는 24만톤 가량(세계 니켈공급의 약 10%)의 니켈수급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3년간 지속된 니켈 공급부족 상황이 향후에도 지속되면서 니켈시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1) 자료원 : Wood Mackenzie (`19년3분기)

2) 자료원 : Wood Mackenzie (`19년3분기)

### I (3) 아연

#### <세계 아연 소비·공급 전망>



아연시장은 `16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종료로 가격하방압력이 크게 발생하면서 호주와 아일랜드의 대형광산들이 폐광하였고, 신규 프로젝트도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공급부족 펀더멘털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세계 아연소비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18년 14.2백만톤에서 `25년 15.4백만톤으로 연평균 1.2%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아연공급은 최근 가격회복에 따라 기존 대형광산의 재가동 및 신규 프로젝트 진입효과로 같은기간 연평균 2.2% 성장세가 예상된다<sup>3)</sup>. 따라서 향후 아연시장 펀더멘털은 공급부족에서 공급과잉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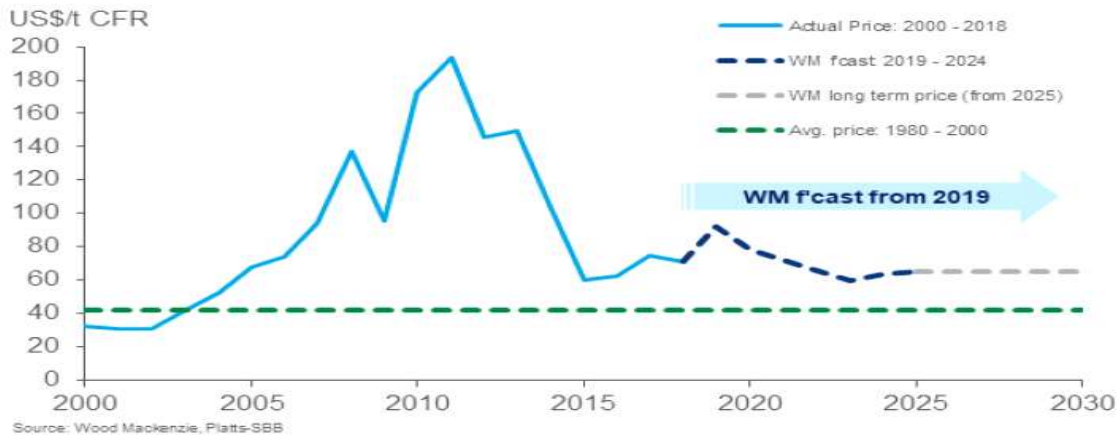
### I (4) 철광석

철광석 시장은 최대 철강 제조국인 중국의 경기상황과 부침을 같이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 브라질과 호주를 중심으로 메이저 Vale, Rio Tinto, BHP사의 저원가 증산기조로 공급과잉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올해는 메이저 Vale사의 브라질 광미뎀 붕괴사태로 인해 공급충격이 발생하면서 공급과잉분이 20% 정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철광석 소비량은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18년 2,205백만톤에서 `25년 2,308백만톤으로 연평균 0.7%의 미미한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sup>4)</sup>이어서 공급과잉적 펀더멘털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3) 자료원 : Wood Mackenzie (`19년3분기)

4) 자료원 : Wood Mackenzie (`19년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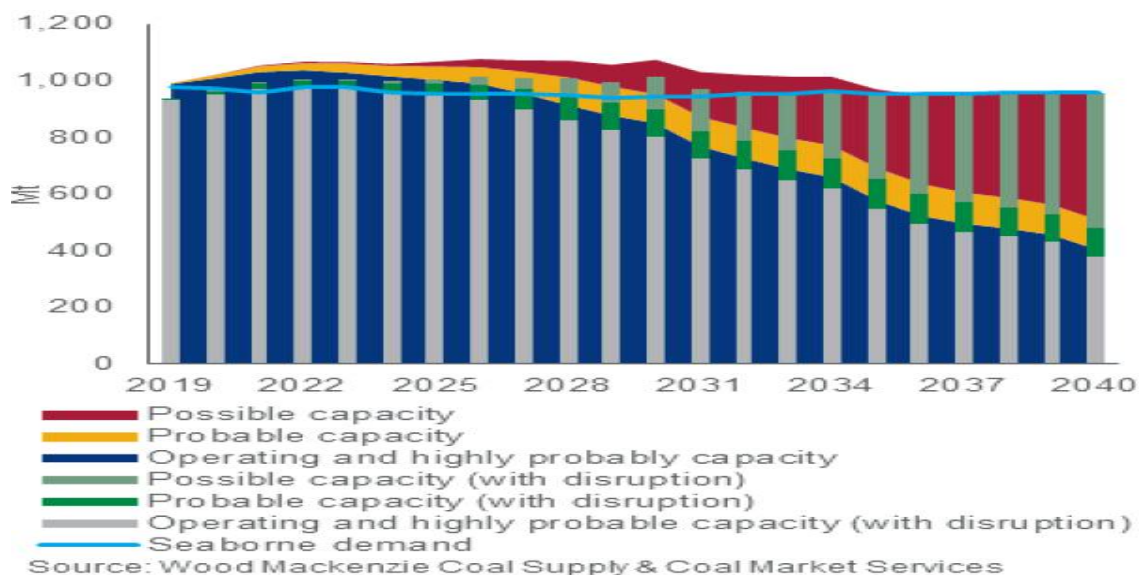
〈철광석 가격(중국 주요항구 CFR기준) 장기전망〉



I (5) 유연탄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원 전환기조로 천연가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도 추가되면서 유연탄의 발전수요 비중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연탄 소비량은 `19년 974백만톤에서 `25년 943백만톤으로 연평균 -0.5%의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탄 공급은 중국의 해외 석탄 수입규제 강화로 해상교역탄의 공급이 위축될 전망이다(서 `19년 990백만톤에서 `25년 1,005백만톤으로 연평균 0.2%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연료탄 공급과잉은 소비감소세로 인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연료탄(해상교역탄) 소비·공급 전망〉



5) 자료원 : Wood Mackenzie (`19년3분기)

## I (6) 우라늄

우라늄 시장은 `11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소비 둔화세로 재고량이 누적됨에 따라 하향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메이저 캐나다 Cameco사와 카자흐스탄 Kazatomprom사의 우라늄 감산정책이 추진중이며, 중국의 신규원전 건설확대 추진으로 수급여건이 점차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원자력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에 따르면, 우라늄 수요는 일본 원전재가동 정책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UAE 등 신규 원전수요로 `19년 67,600톤에서 `30년 84,850톤으로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